

## 동남아 전자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방향과 정책\*

이충열\*\* · 이선호\*\*\*

### I. 서론 및 연구의 목적

전자금융의 발전은 국가간의 무역활성화 및 서비스 이동과 자금 이동 촉진을 통하여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한다. 즉 국가간 자금 이전 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이 손쉽게 이동하여 투자가 촉진되었고, 무역 관련 비용 및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무역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송금 비용이나 여행경비 지급 비용 등이 줄어들어 따라 서비스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전자금융의 발전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인 일본,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자유화를 확대하였고, 대외지향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sup>1)</sup> 또한 이들 국가의 근로자들이 주변 국가로 이동하여 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소득 증대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

\* 2008년 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본 논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준 참석자들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동아시아연구 발전기금에서 후원받았습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cllee@korea.ac.kr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통계학과 박사과정

1)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연평균 대외무역증가율은 1980년대 11.4%에서 1991~1995년간 29.9%, 1996~2000년간 6.09%, 2001~2005년간 10.69%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에서 전자금융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전자금융서비스의 수출 가능성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내 전자금융 서비스의 동남아 진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금융산업이 지식 기반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주도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에도 국내 산업의 수준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3)</sup>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동남아 국가의 전자금융 수준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살펴본다. 먼저 전자금융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론에 기초하여 전자금융의 발전단계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7개국의 전자금융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다.<sup>4)</sup> 이때 각국의 경제수준 및 전자금융의 발전 현황을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고, 이를 위의 발전단계별로 구분한다. 이후 동남아 국가의 전자금융산업 및 서비스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전자금융서비스의 수출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 방법론과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제시한다.

2) 2006년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근로자의 필리핀 송금액은 1990-1992년중 GDP의 3.5%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에는 11.0%를 기록하였다.

3) 2007년말 현재 국내 전자금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인터넷 뱅킹 사용 비율이나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소득은 세계에게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각종 카드를 사용하여 대도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 전기 등 각종 요금의 청구 및 지급이 보편화되어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4) 현재 대상 국가가 7개국에 이르고, 전자금융서비스 역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자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우 간단하게 이를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부록에서 제시한다.

## II. 동남아 국가 및 한국의 전자금융 발전 단계

### 1. 전자금융의 정의와 발전단계

전자금융은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 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주요 전자금융 시스템으로는 대금결제를 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기관의 회계나 경영에 관련되어 각종 금융기관 내부 자료의 정보화로 구성되는 코어뱅킹 시스템이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인 거액지급결제시스템과 개인 간의 대금 지급을 담당하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때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금액이 거액으로 모두가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결제되고, 소액결제시스템은 현금, 수표 등 장표기반 방식과 카드기반 방식, 계좌기반 지급수단 등으로 구성되며, 카드기반방식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이 있고, 계좌기반 지급수단으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온라인 지급결제, 이동은행, Branchless Banking, 모바일뱅킹 및 무선결제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수단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음 및 수표교환소, ATM 공동망, 은행간 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 등의 소액결제네트워크 등이 있다. 한편 코어뱅킹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각종 거래나 자료를 컴퓨터 정보로 이루어지게 하고,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를 전산화하

5) 전자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보다 정확한 정의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김재필·이영수(1999), 이충열(2003)을 참조하시오.

며, 위험관리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는 제1단계 업무자동화, 제2단계 네트워크화, 제3단계 서비스채널 다양화, 제4단계 지식정보산업화 등 4 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 업무자동화 단계는 전자금융 발전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월급 및 거래 계정의 전산화에서 시작하여 내부 온라인망으로 확대하는 단계이다. 즉 제1단계는 업무자동화 단계로 각 금융기관이 내부의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CD/ATM 및 지로 등을 도입하여 장표처리의 자동화를 통한 창구업무의 축소를 도모하는 단계이다. 1단계 국가에서는 국민 상당수가 은행 계정이 없거나 은행을 통한 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현금이 가장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특정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본점과 지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폐쇄된 네트워크(closed network)가 형성된 시점이다.

제2단계 네트워크화 단계는 각 금융기관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결제 기능면에서 하나의 조직과 같이 긴밀히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호환성을 개선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에서는 각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상호 연결된 새로운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를 그 은행의 ATM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ATM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의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이체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단계에서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이 운영되기 시작하며, 중앙은행은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sup>6)</sup>

6) 금융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CD, 타행환,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 등 은행공동망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간 네트

제3단계는 서비스채널 다양화단계로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물리적인 접촉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에서는 PC통신이나 전화, 나아가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리적인 점포 없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은행(Virtual Banking)이 등장한다. 전자화폐가 개발되어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의 지급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제3단계에서 소비자는 개발된 네트워크망에서 다양한 기기로 직접 금융기관 컴퓨터에 접근하여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수천만 명이 자신이 보유하는 다양한 기기로 금융기관 컴퓨터에 직접 접근함에 따라 해킹이나 기타 보안 문제 등이 심각하게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고도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이 요구된다.

제4단계는 전자금융의 각서비스가 정보지식산업으로 통합·전환되는 단계로, 금융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능이 보유되어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모두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은 정보관리를 통해 특정고객의 특수한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의 성격 및 금리 등에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소비자 역시 자신이 보유하는 다양한 기기를 자동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활용하게 된다.<sup>7)</sup>

---

워크는 개방되어 서로 연동되거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2000년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액전자결제서비스망인 BOK-Wire가 1994년 12월 개통되었고, 각종 소매결제시스템이 운영되었다.

7)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의 기간이 1단계에 해당되고, 1990년대에 비로서 제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단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4단계는 201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동남아 각국의 경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서 개발 초기의 국가와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로 구분되며 경제규모나 1인당 소득면에서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 <표 1>과 같이 GDP 규모로 볼 때 인도네시아는 2006년 현재 3,645억 달러로 라오스의 35억 달러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인구면에서도 각각 2.2억명과 6.4백만명으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1인당 소득에서도 2006년 중 1인당 소득이 447달러에 그친 캄보디아가 있는 반면, 5,704달러를 기록한 말레이시아가 서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sup>8)</sup>

&lt;표 1&gt; 동아시아 각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인구 (백만명)	GDP (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 (10억달러)	수입 (10억달러)
인도네시아	228.9	364.5	1524	13.1	103.5	80.3
태국	63.4	206.2	3185	4.6	130.8	128.6
말레이시아	26.1	148.9	5704	3.6	160.6	131.1
필리핀	86.2	117.6	1484	6.2	47.0	53.6
베트남	86.2	61.0	723.9	6.6	39.6	44.4
캄보디아	14.4	6.1	447.0	2.8	2.6	2.1
라오스	6.4	3.5	570.0	4.7	0.3	0.4

주: 2006년 기준

출처: ASEAN사무국, <http://www.aseansec.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도입면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 2006년 기준으로 유선전화 가입자 현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인구 100명당

8) 동남아 국가들간의 경제구조차이는 산업구조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1인당 소득이 낮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1차 산업의 비중은 2005년 현재 각각 32.9%와 47.0%를 차지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9.9%와 8.4%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한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1차 산업비중은 각각 14.4%와 13.4%이고, 베트남은 20.9%로 그 사이에 있다.

92.3명인 반면, 캄보디아가 8.2 명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태국과 필리핀이 각각 73.8명과 55.1명으로 나타났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34.8명과 30.2명으로 나타났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가장 작은 12.0명과 8.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6년 기준 무선전화 가입자 현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인구 100명당 75.5명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가 8.0 명으로 가장 작아 이 역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태국이 62.9명, 필리핀이 50.8명으로 나타났고, 인도네시아가 28.3명으로 나타났으며, 라오스는 16.2명을 기록했다. 2001년~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각각 96.74%, 63.19%, 55.43%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19.55%로 가장 낮는데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무선전화가 매우 넓게 보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동남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보통신시장 지표

	유선전화가입자 (인구100명당)		무선전화가입자 (인구100명당)		무선전화가입자 유선전화가입자 (인구100명당)	인터넷사용자 (인구100명당)	
	2006	2001~06 증가율	2006	2001~06 증가율		2006	2001~06 증가율
베트남	30.2	41.15%	18.2	63.19%	60.2	17.2	68.42%
캄보디아	8.2	33.80%	8.0	36.75%	96.9	0.3	34.66%
라오스	12.0	51.27%	16.2	96.74%	134.6	0.4	17.19%
인도네시아	34.8	40.50%	28.3	55.43%	81.2	4.7	18.47%
태국	73.8	27.47%	62.9	38.88%	85.2	13.1	18.05%
말레이시아	92.3	17.77%	75.5	19.55%	81.8	54.2	15.35%
필리핀	55.1	22.71%	50.8	26.71%	92.2	5.5	16.44%
한국	133.6	2.90%	83.8	6.43%	62.7	72.8	7.15%

출처: ITU, <http://www.itu.int/ITU-D/icteye/Indicators/Indicators.aspx#g19>

9) 2001년~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각각 51.27%, 41.15%, 40.50%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17.77%로 가장 낮는데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유선전화 포화상태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기준 무선전화 가입자와 유선전화가입자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화비율이 낮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이 매우 높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선전화는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선전화에 비해 고정비용이 큰 반면, 사용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변비용이 낮은 특징을 갖는다. 특히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동 비율이 각각 134.6%와 96.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유선전화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전화수요가 최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선전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기기에 기초한 전화 및 통신 설비 구축이 어려움을 겪어 유선에 비하여 무선전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100명당 인터넷사용자는 2006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가 54.2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베트남이 17.2명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태국 역시 13.1명에 그치고, 최빈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0.3명과 0.4명에 그치고 있다.

### 3. 동남아 각국의 전자금융 발전 현황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전자금융 발전 상태를 4단계로 구분한다. 이때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위의 발전단계 정의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각국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간 온라인 연결 상태, ATM 및 현금카드 도입·설치, 중앙은행의 실시간거액결제(Real Time Gross Settlement, 이후 RTGS) 시스템 도입, 전자소매결제망의 존재, 인터넷결제시스템 도입, 전자화폐

도입, 인터넷뱅킹 도입, 모바일뱅킹 도입 여부 등을 살펴보고, 각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때 각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 1000만 명당 몇 대의 ATM 기기가 도입될 경우 ATM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 연구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관계자와의 인터뷰, 각 신문의 기사 등을 참조하여 살펴본다.<sup>10)</sup>

첫째, 베트남은 현재 전자금융 발전의 제1단계 후반인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일부 상업은행들을 연결하는 은행간 전자결제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 IBPS)과 은행 본·지점간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1차 지급결제시스템 및 은행현대화 프로젝트'를 2003년에 완성하였다. 또한 호치민시티나 하노이 등 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ATM 기기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ATM 네트워크도 일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ATM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 본·지점간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소매결제망이 완성되지 않아 은행간 소매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표 사용이 미비하며 현금사용 빈도가 높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또한 2007년 현재 전자금융발전의 제1단계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현금거래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을 중심으로 현금카드나 ATM이 보급되고 있다.<sup>11)</sup>

10) 특정 전자금융서비스가 성공하였는가를 계량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인구의 몇 %가 특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가 혹은 이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 도입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는 가 등에 기초하여 이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얻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자금융 발전 2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RTGS 시스템으로 ID-RTG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식 어음교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간 ATM 네트워크, 전자식 은행간 계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전자화폐나 무선결제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의 비현금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앙은행 역시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은 전자금융 발전의 제2단계를 거치고, 이미 제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중앙은행은 RTGS 시스템으로 BATHNET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식 어음교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간 ATM 네트워크, 전자식 은행간 계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뱅킹, 무선결제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의 비현금결제수단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은행 역시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RTGS 시스템으로 RENTAS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음교환소로 SPICK(System Penjelasan Imej Cek Kebangsaan or the National Cheque Image Clearing System)이 도입되어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간 ATM 네트워크, 은행간 지로네트워크, 전자식 은행간 계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뱅킹, 무선결제, 전자화폐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의 비현금결제수단이 도입되었고 확산 중에 있다.

---

11) 한국은행은 2007년 10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업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12월 차장 1급 직원을 1명 파견하였다. 이는 향후 캄보디아 전자금융시스템의 디자인과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향후 국내 업체가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진출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표 3> 동남아 각국의 주요 전자금융시스템 현황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ATM 및 현금카드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본지점 온라인연결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중앙은행 RTGS	도입	○	×	×	○	○	○	○
전자소매 결제망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인터넷뱅킹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신용카드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모바일뱅킹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전자어음교환소	도입	×	×	×	○	×	○	○
	활성화	×	×	×	×	×	○	×

주: 본 현황표는 저자가 각국 중앙은행 웹사이트나 기타 전자금융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각 서비스의 활성화는 대체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국 시스템의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필리핀은 전자금융 발전단계에서 2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RTGS시스템으로 PhilPaSS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표교환소인 PCHC(Philippine Clearing House Corporation)을 통하여 수도 마닐라 및 기타 지역간 수표 교환이 이루어지고, 도심이외의 지역간에는 수작업 결제시스템이 사용된다. EPCS(Electronic Peso Clearing System)의 은행간 전자결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3개의 은행간 ATM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들 네트워크가 상호 호환되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활용도는 낮으나 인터넷뱅킹이 도입되고, 전자화폐가 도입되었으나 활용이 미진한 반면 무선결제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sup>12)</sup>

### Ⅲ. 발전 단계별 한국의 동남아 전자금융 진출 전략

#### 1. 진출 전략 수립 원칙

국내 전자금융 서비스 업체가 동남아 국가 진출 전략 수립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는 전자금융의 경제학적인 특성과 과거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성공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전자금융 서비스 동남아 진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이다.

첫째, 전자금융진출 전략은 각국의 전자금융의 이론적 성공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때, 이론적 성공은 각국의 소비자나 기업, 금융기관들이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이 아시아 각국에 수출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서비스의 특성과 성공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서비스는 인프라 투자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재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남아 진출 전략은 각 국가의 경제체제와 현황 및 정치적인 특징을 활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구조나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다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같이 1인당 GDP가 5000달러에 이르는 국가와 500달러 근처인 캄보디아 같은 국가가 있으며, 정치체제 역시 민주국가에 있는 반면, 공산주의 국가가 있고, 시장경제체제를 사용하는 국가와 계획경제국가 등 다양한 체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국에 적합한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할 것

---

12) 무선결제 혹은 무선금융은 유선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효율적이 지급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필리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Ivatury and Pickens 2007) 등을 참조하시오.

이다.

셋째, 진출 전략은 각 국가의 전자금융 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동남아국가들은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으며, 발전 단계에 따라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자금융시스템은 상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IT 부문 수출에는 각 부문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진출 전략은 각국 IT 수준과 발전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은 IT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여 개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국의 IT 부문 발전 및 적용 정도에 따라 전자금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또한 IT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적응도, 활용도 등은 서비스 시작 후 활용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IT 수준과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출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전자금융서비스는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고, 투자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수반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lock-in 현상이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서비스는 외부평판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기업이 보다 단기적인 수익 확보에 힘쓸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민간 기업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제1단계 국가

제1단계 국가에서 필요한 전자금융서비스는 크게, 국가전자금융 발전 계획수립, 중앙은행 RTGS 시스템 개발, 민간 은행은 정보화, ATM 기기의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국가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크게 (1) 총괄적인 국가전자금융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2) 단기적으로 개별 전자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① 중앙은행 시스템 개선과 ② 상업은행에 해당되는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구분된다.

총괄적인 국가전자금융 시스템 디자인은 해당국의 전자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관(대체로 중앙은행)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실시간 은행간 총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어음교환소의 전산화, 타행간 결제시스템, 은행간 ATM의 호환성을 이루는 은행간 ATM망 설치 등 종합적인 국가 전자금융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1970~1980년대 우리나라가 낙후되었던 전자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종합계획을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시급한 결제시스템 구축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필요한 재원조달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의 시스템 개선은 크게 (1) RTGS 기반의 중앙은행 은행간 결제시스템 구축과 (2) 중앙은행 본점과 지점간의 Core Banking System 구축으로 구성된다. RTGS 바탕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 구축은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으로서 은행간 결제를 완결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각으로 은행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본점과 지점간 온라인시스템 혹은 Core Banking System 구축으로 지방의 은행간 결제를 중앙은행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상업은행의 시스템개선은 대체로 (1) 국영상업은행의 본점과 지점 간 온라인시스템 혹은 Core banking system 구축과 (2) ATM 구축 등과 같이 비도심권에서 전자금융서비스 확산을 통한 은행서비스 제공으로 구성한다. 이들 국가들의 상업은행은 대체로 정부가 소유하는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행은 정부 및 감독기관과 연결하여 실시한다. 이때 ATM 설치를 통하여 국민들이 은행계좌를 통한 금융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은행기관 관련 지원은 (1)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무선금융과 무선결제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 (2) 간단한 대금송금 기관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유선망을 사용하려면 금융서비스 제공에 너무 많은 초기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금융기관 수나 교통 및 통신시설의 미비로 금융기관 접근이 매우 어렵고, 금융서비스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많게 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무선금융 및 무선결제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지원 정책은 대체로, 한국 재경부나 중앙은행,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과 해당국가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단계 국가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대체로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의 기초 시스템이고, 또한 이들 국가의 상업은행은 대체로 국영 상업은행의 형태를 띠며 재무부나 중앙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1단계 국가들은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정부이거나 정부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와의 직접 접촉을 통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된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시설 구축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ODA자

금이나 국제기구의 차관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단계 국가에서 전자금융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국 정부가 경제개발 종합계획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 경우, 만약에 종합개발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전자금융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이 있다면 전자금융 시스템 개선 계획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때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이것이 전자금융시스템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전자금융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필요성을 제시·홍보한다. 반면,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이것이 전자금융시스템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면 국내 전자금융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이 경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전자금융 시스템의 포함 여부 등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관련 공공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은행 등의 기관과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은행연합회, 관련 협회 등의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민간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띤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국의 종합개발계획에 전자금융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국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민간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는 즉시 필요하게 된다. 한편,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은 민간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1970년대~1980년대에 이루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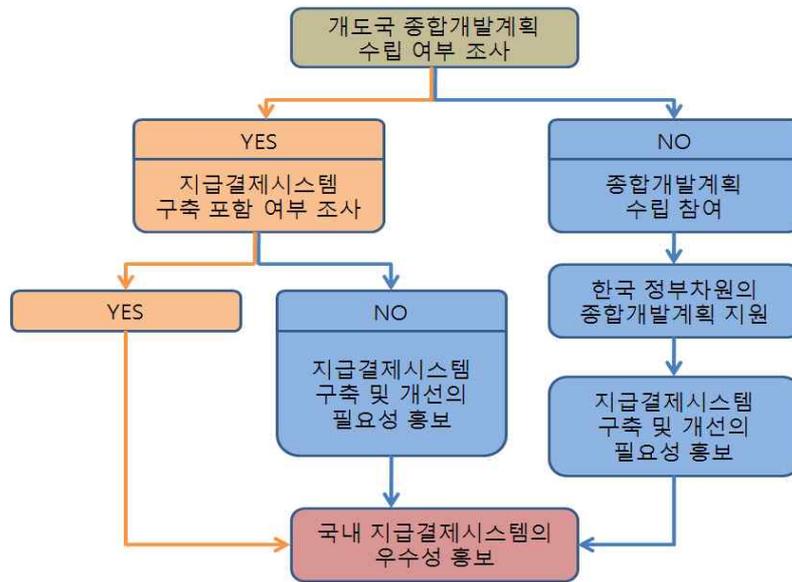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CITI 은행이나 HSBC 은행 등과 같은 글로벌 은행의 시스템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1단계에 속해있는 국가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권위적인 정치 및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는 금융기관 개별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결합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시스템은 공공성이 크고, 정부의 규제와 영향을 크게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실제 진출시 매우 중요하게 된다.

또한,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융기관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단계국가에서 요구되는 전자금융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이미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단순한 기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들간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화사업은 은행 계정의 전산화, 본점과 지점간의 연결 등 보다 간단한 시스템 구축에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선발 개도국 역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동남아나 중동 등과 같이 주변의 같은 문화권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1단계 국가의 전자금융 서비스 수출 추진 전략



### 3. 제2단계 국가

제2단계 국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금융기관간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즉 중앙은행의 RTGS가 도입되었거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개별 금융기관의 네트워크화를 이룩한 국가들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각종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개발이다.

이때 금융기관간 네트워크는 대체로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기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형태가 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형태이고, 금융기관간의 결제를 전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고급의 정보

기술이 요구된다.

먼저 중앙은행의 경우, 대체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RTGS가 아니거나 시설이 낙후되었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때, 이들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최초 시설 설치자가 어느 정도 우선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최초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소액지급결제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으나 용량이 떨어지고, 일부만이 작동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즉 은행간 ATM 네트워크, 타행환, 여음교환소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단계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2단계에 포함된 국가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IT 기술이 정비된 국가이고, 또한 이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기업에 필요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것보다는 자국내 금융기관 혹은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국기업의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현지화나 혹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2단계 해당국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국가이고, 정부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해당국 정부나 공공기관과 접촉하여 시스템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 궁극적인 시스템 구축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와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및 한국 기업,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또한 무역협회나 대한무역진흥공사 등과 협력도 요구된다.

#### 4. 제3단계 국가

제3단계에서는 개방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와 금융기관 컴퓨터간의 연결이 가능한 단계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 간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 및 방법이 다양해지고, 개별 금융기관 역시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들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나 경쟁체제가 어느 정도 성숙된 국가들로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수한 설비나 기술에 바탕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는 매우 고급의 IT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유럽과 미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된다.

이 경우 해당국가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소매금융시스템 개선, 개별 금융기관의 첨단 전자금융시스템 도입 및 업그레이드로 구성된다. 기존의 소매 은행간 결제시스템 도입시에는 기존 설비 구축업체와 경쟁하는 것이므로 이들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먼저 국내의 다양한 전자금융망을 분석하고 각국에 적합한 전자금융망을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 단계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및 업그레이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때, 국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무선결제시스템, 전자화폐 등으로 이들은 금융기관이 개별 고객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내 인터넷뱅킹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하여 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선불카드 역시 매우 발전된 수준이며 모바일뱅킹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력에 기초하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정치적인 역할에 기초하여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은행연합회나 금융결제원 등 협회성격을 갖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의 협회나 기타 공공단체 등은 각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쟁력,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5. 한국의 동남아 전자금융 진출 가능성과 문제점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동남아에 비하여 매우 앞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동남아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진출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산업의 동남아 진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금융 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시스템통합 업체들과 금융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해외 전자금융 서비스의 진출은 주로 정보산업의 시스템통합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금융기관에 이와 같은 서비스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해외진출 사례는 우리나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주류이고, 대규모 중앙은행 시스템과 은행간 결제시스템 구축도 일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상에서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에 필요한 기관간의 협력 부족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자금융서비스 수출에 따라 이득을 보는 집단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시스템통

합 업계이다.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 보다는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로 인한 예금/대출 업무, 송금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통합 업체들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직접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어 현지화를 추진할 경우, 새로운 소프트웨어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통한 타 금융기관 판매나 선전도 가능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정도 수준은 되지 못한다.

둘째, 국내의 법률이나 규정에 기초할 때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국내 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새로운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창조 보다는 국내 전자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실제 전자금융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해외진출에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 시스템통합 업체가 아니라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산업은 대체로 인프라사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투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형업체들은 각종 국내 금융기관의 최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즉 국내 10여개나 되는 국내 은행과 20여개가 넘는 증권사가 계속하여 시스템 업

그레이드를 통한 경쟁을 하는 반면, 실제로 이 금융기관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 업체는 대체로 3~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국내 프로젝트에 전념하게 된다. 특히 개별 은행의 특정 프로젝트에도 수 년이 소요되고, 업무의 성격상 한 시스템통합 업체가 동시에 2개의 금융기관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이런 대형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된다.

넷째, 비록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이들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대형사업의 특성상 평판이나 회사의 과거 실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관행을 고려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과 협조하기도 매우 어렵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동남아 각 국의 전자금융 발전 상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전자금융서비스의 수출 가능성과 방법 등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내 시스템과 동남아 국가의 전자금융시스템간에는 사용되는 시스템의 기술이나 사용 방법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국가들은 국내의 발전 경험을 기초하여 국가 전자금융 발전 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서부터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산업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국가들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서 불구하고 국내 전자금융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내 전자금융시스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이 전자금융시스템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률이나 규정면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둘째, 국내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것을 얻기 또한 쉽지 않으며, 셋째, 국내 시장의 수요 증가로 국내의 대기업이 해외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고, 단지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려 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향후 전자금융서비스의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자금융서비스는 미래 성장산업중의 하나이고, lock-in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수출 가능성과 동남아 지역의 전자금융현황, 이 지역으로의 진출 가능성 및 진출 방법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7개국에 해당하는 여러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다. 개별 국가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개별 국가의 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또한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경쟁력 지표 추정 등과 같은 계량적인 분석이 시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작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수행된다면 본 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전자금융, RTGS, 지급결제서비스, 수출

<참고문헌>

- 권 율. 2008. “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수출입은행 베트남 세미나 발표 자료.
- 이충열. 2003. 『디지털금융 시대의 금융구조 변화와 정부 규제 및 정책』. 아산재단 연구 총서 115, 집문당.
- 이충열·김재필. 2007. 『해외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및 결정과정 조사』. 한국여신금융협회.
- 이충열·김재필·이영수. 1999. 『디지털금융』. 도서출판 흥.
- 채희율·이영섭. 2004.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금융학회 발표 논문.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2004. 『전자금융 총람』.
- 한국은행. 2004.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12월.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2007. *The Philippine Payments and Settlements System(PhilPaSS)*.
- Bank Negara. 2007.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System Report 2006*.
- Bank Indonesia. 2005. *The Bank Indonesia National Clearing System(SKNBI)*.
- Bank Indonesia. 2006. *Bank Indonesia Real Time Gross Settlement (BI-RTGS) System*
- Bank Indonesia. 2007. *About the BI-RTGS System*
- Bank of Indonesia.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 Bank of Indonesia. *Payment System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 Bank of the Laos PDR.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 Bank of the Laos PDR. *Lao Financial Statistics*, various issues.
- Bank of Thailand. *Payment 2004: A Road Map for Thai Payment Systems*, January 2002

- Bank of Thailand. 2007. *Payment System Report 2006*.
-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The Philippines. 2007. *Report on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with Online Payment System*
- EMEAP. 2002. *Payment Systems in EMEAP Economies*.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7. *Cambodia: Financial Sector Diagnosti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7. *Laos: Financial Sector Diagnosti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7. *Vietnam Financial Sector Diagnostic*
- ITU. <http://www.itu.int/ITU-D/icteye/Indicators/Indicators.aspx#>
- Ivatury, Gautam and Mark Pickens. 2007. "Mobile Phone Banking and Low-Income Customers: Evidence from South Africa." 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The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Foundation.
-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 National Bank of Cambodia. 2007. *Banking Supervision Annual Report 2006*.
- National Bank of Cambodia. 2007.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06-2015*.
- Owens, John and Anna Bantug-Herrera. 2006. "Catching the Technology Wave: Mobile Phone Banking and Text-a-Payment in the Philippines." Chemonics International Inc.
- Roman, Pia Bernadette. 2006. *Evolution and Future of Electronic Banking: Expanding Access to Banking Services*.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World Bank. 2007. *LAO PDR, Economic Monitor*, November 2007.

## <부록> 동남아 국가의 전자금융 현황

### 1. 베트남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내 모든 성 및 직할시에 지점을 보유하고, 발권업무 및 어음교환 및 은행간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1999년 8월~2003년까지 ‘1차 지급결제시스템 및 은행현대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베트남 지급결제시스템을 현대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지급결제센터(the National Payment System Center, NPSC) 및 백업센터와 5개 지역지급결제센터(Regional Payment Processing Centers, PPCs)가 설립되었으며, 중앙은행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으로 (Inter-Bank Payment System)시스템이 개설되어 금융기관간 거래결제를 RTGS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상업은행에 Core Banking System이 도입되어 본점과 지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자금이체 및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되게 되었다.

한편, 1993년 현금카드의 도입으로 카드 기반 지급결제시스템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주로 현금인출용이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사용은 아직까지 매우 미비하다. 2007년 3월 현재 20개의 카드사와 카드발행은행 및 3800개의 ATM, 21000개의 POSs가 있고, 620만개의 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최근 2~3년간 매년 200~300%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중앙은행이나 공영기관이 관장하는 ATM 네트워크는 없고, 현재 은행 및 기업이 출자하여 일부 은행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활용 중이다. 2007년 말 현재 베트남에는 SmartLink, BanknetVn, VNBC(Vietnam Bank Card), ANZ/Sacombank 등 4개의 ATM 네트워크가 작동되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들의 호환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중이고, 2009년까지 이를 완성할 계획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간 결제시스템의 용량 및 속도를 개선하고, 포함은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2차 지급결제시스템 및 은행현대화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 말에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화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온라인결제 등 인터넷에 기반한 결제시스템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에 대한 기반시설이 2차 현대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 2. 캄보디아

2007년 말까지 캄보디아에서는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전자결제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은행 예금계좌수가 286,000개로 국민 50인당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이 존재하여 금융서비스 활용 인구가 매우 적고 이 역시 주로 수도 프놈펜 등에 집중된 상황이다.

캄보디아에는 17개의 상업은행과 5개의 특수은행 및 이들의 249개 지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3~4개의 지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영세하고, 단지 MFI(소액신용대출기관, Microfinance Institute)로 출발하여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ACLEDA (Association of Cambodian Local Economic Development Agencies) 은행만이 전국적으로 163개의 지점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은행 지점이 6.7개로 2005년에 비하여 3배 증가할 정도로 은행 지점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금융거래의 95%는 미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전체 은행자산의 97.5%가 외화자산이며, 모든 대출도 미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현재 은행간 결제시스템 개발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고려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ACLEDA나 ANZ 등 일부 은행은 본점과 일부 지점간의 온라인 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장표 형태의 지급요구서(payment order)를 사용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5개의 은행이 ATM 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2004년 처음 현금인출용도의 은행카드가 도입되어 2006년 말 현재 36,013개의 현금카드 및 5279개의 신용카드가 발행되었고, 주요 도시에 86개의 ATM 기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ATM 기기 및 카드의 70%는 외국계 은행인 ANZ가 발행한 것으로 국내 은행의 ATM서비스 제공은 미비한 편이다.

수도인 프놈펜과 일부 도시에 있는 전통적인 어음교환소는 장표 방식으로 개별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표들은 주로 금융기관간 거래에서 사용되고 개인간의 수표 거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 3. 라오스

라오스는 2007년말까지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결제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으며, 현금거래가 중심이다.

2007년 현재 인구의 5%만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수도 비엔티안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 실시된 서베이 결과 저축의 90% 이상을 은행예금보다는 현금형태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6월 현재 라오스에는 3개의 국영상업은행, 6개의 외국은행, 2개의 민영상업은행과 2개의 조인트벤처은행, 1개의 정책은행이 존

재하고, 이들의 갖고 있는 지점수는 50개에 불과하여 인구 10만명당 0.8개의 지점이 존재한다. 2006년 10월 현재 3개의 국영 상업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59.5%를 점유하고, 민간상업은행은 41%를 차지하여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국영상업은행 중 BCEL은 전체 은행자산의 37%를 차지하여 시장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전통적인 어음교환소에서 각 금융기관은 장표 방식으로 수표를 교환한다. 그러나 하루에 1회 만나서 은행간 자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낮다.

라오스 정부는 2007년 10월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급여이체 시스템을 시작하였고, 2008년 1월 모든 급여 및 지급을 은행 계좌이체로 하였다.

한편, 라오스의 개별 상업은행들은 현재 은행 본점과 지점간의 행내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즉 2005년 최초로 ATM 기기가 도입되었고, 2006년말 현재 수도 비엔티안에 35개의 ATM 기기가 설치되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2010년까지 라오스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라오스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계획을 2006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2007년과 2008년 동안 본점과 지점간의 계정을 전자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Core Banking System을 설치하고, 전자거래를 담당할 수 있는 National Payment Center 혹은 전자카드서비스 센터를 개설하여 ATM을 설치하고 라오스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의 전자금융발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999년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국가지

급결제시스템(National Payment System, NPS)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2000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실시간 은행간 전자결제를 담당하는 BI-RTGS 시스템을 작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143개의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전국 금융기관 대상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SKNBI(the Bank Indonesia National Clearing System)를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SKNBI에는 인도네시아 143개 은행, 2000여개의 지점이 모두 가입되어 전자적으로 은행간 수표, 지로, 자금이체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SKNBI은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 지역에서의 전자결제시스템(Electronic Clearing System) Surabaya와 Medan 지역의 자동결제시스템(the Automated Clearing System),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33 지역의 반자동제도, 중앙은행이 위탁한 31개 지역의 31개 장표식 수동시스템(the manual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ATM이 활성화되어 있고 5개의 ATM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가 사용된다. 인도네시아의 현금+직불카드는 2007년 현재 32.7백만 장, 현금카드는 2.5백만 장이 발급되었고, 신용카드도 9.2백만 장이 발급되었고, ATM은 2007년 현재 19607개 설치되었다.

비자, 마스터카드, JCB, Diners Club 등 국제적인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다. 비자는 15개 은행이, 마스터카드는 13개 은행이 참여하고, JCB는 2개의 은행이, Diners Club는 1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자수가 2006년중 8.2백만장에서 2007년중 9.2백만장으로 11.7%가 증가한 반면, 2006년과 2007년중 카드당 연간사용회수는 13.1회와 13.6회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신용카드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07년 중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신

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온라인결제 등 각종 비현금 활용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현금관리를 위하여 중앙은행내에 Cash Centres를 설립하는 등 향후 전자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5. 태국

태국 중앙은행은 산하에 Payment System Committee를 구성하고, 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책임을 지면서 거액결제시스템 Bathnet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은 1995년 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BATHNET을 개통하였고 현재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국에는 은행간 수표 교환을 위하여 상업은행이 구성한 전자어음교환제도(Electronic Check Clearing House, ECH)가 전자어음교환제도(Electronic Clearing System, ECS)를 운영하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지역수표정산시스템(Provincial Check Clea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어음교환소는 1996년 7월에 개장하여 은행간 수표를 전자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표와 어음을 당일 저녁 전자어음교환소로 보내고, 고객은 다음날 대금을 지급받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한편 지방수표정산소는 지방내 은행간 수표를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2000년 이전에는 타행, 타지방 수표 지급에 7~15일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6일 이내로 감소하였다.

은행간 소액 결제시스템 및 네트워크로는 Media Clearing, SMART, ATM Pools 등이 운영된다. Media Clearing은 1997년 도입된 것으로 특정 은행고객이 미리 은행과 계약하여 특정일에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서비스인 지로와 와 즉석에서 처리하는 계좌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은행간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SMART(System for Managing Automated Retail Funds Transfer)

는 Media Clearing을 웹기반으로 확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조정한 시스템이다. 2005년 7월 태국 상업은행들은 National ITMX Co. Ltd 를 발족하고, 2007년말까지 기존의 SMAT에 인터넷, 모바일 결제 등과 같은 소액 결제시스템이 통합되고, 각종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으며 Bulk payment 기능을 보유하는 ITMX(Interbank Transaction Management and Exchange)를 개설할 예정이다. ATM Pools는 상업은행간 ATM 네트워크로 태국 중앙은행이 1993년 개별 은행의 ATM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이다. ORFT(on-line retail funds transfer)는 2005년 12월에 시작된 것으로 ATM기기를 통하여 특정 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고 또한 자금 수취자가 즉시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현재 100,000)이다. 마지막으로 EFTPOS(Electronic Fund Transfer and Point Of Sale)망을 통하여 신용, 직불 등 각종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2001년~2006년간 은행간 결제추이를 볼 때 아직까지 장표기반 지급결제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지급결제보다 그 규모는 크나, 증가율면에서 장표기반의 지급결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지급결제는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2006년까지 태국에서 ATM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의 급격한 개선이 ATM 활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ATM기 수가 2001년 6,385개에서 2006년에는 21,988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EFTPOS 터미널이 2002년 61,000개에서 208,94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ATM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발급이 2001년 26.3백만에서 55.7백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현재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고, 인터넷뱅킹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으나, 각각 그 사용자가 13만 명과 2.1백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태국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확산속도가 빠

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지급결제법(Payment System Act)를 제정하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책임지는 법적 규제를 정비하였다.

RENTAS는 1999년 7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도입한 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크게 은행간 결제를 담당하는 IFTS(Interbank Funds Transfer System)과 정부증권의 거래 결제를 담당하는 SSTS(Scripless Securities Trading System)으로 구성된다.

말레이시아의 수표 결제는 (1) 1997년 중앙은행이 은행간 수표결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한 SPICK, (2) 지역별 어음교환소(DCC, District Clearing Centre) (3) 소도시 어음교환소(TCC, Town Clearing Centre)로 구성된다.

SPICK는 SPICK: Penang, SPICK: Kuala Lumpur, SPICK: Johore Bahru 등 3개 지역에서 사용되며 전체 수표 결제의 약 90%를 차지한다. SPICK는 결제내용을 전자적으로 보내고, 수표 이미지를 보내는 전자식 결제시스템으로 차액결제시스템을 채택한다.

은행간 지로 결제, ATM 네트워크, EFTPOS, 직불카드 네트워크 등과 같은 말레이시아의 소액지급결제는 은행들이 설립한 MEPS(Malaysian Electronic Payment System)에 의하여 운영된다.

은행계정 보유자가 은행카드 대신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ATM에서 은행계정에 접근하는 시스템으로 ‘무선기기 작동 ATM(Mobile Prepaid Top-Up via ATM)’이 2007년 2월부터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 및 전자지갑이 발급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결제서비스가 사용된다.

말레이시아 인터넷뱅킹의 경우 2000년 6월 중앙은행은 국내 은행에 한하여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인터넷을 통한 각종 뱅킹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시작하여 잔금조회, 정보제공,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레이시아에서 각종 카드 사용 환경은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D/ATM기기 수가 2002년 4,213개에서 2006년에는 8,956개로 증가하여 인구 백만 명당 약 336.9대에 해당되며, EFTPOS 기기는 2002년 1000개 내외에서 2006년에는 156,161개로 크게 증가하여 인구 100만 명당 5,870.7개를 기록하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각각 8.8백만 개, 18.6백만 개 발급되어 인구 1인당 약 0.3개와 0.7개 발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기준 선진국인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가 각각 ATM기를 인구 100만 명당 763, 647, 698개이고, EFTPOS가 각각 17,464, 6,906, 17,976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뱅킹 사용인구와 거래 건수 및 금액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 현재 등록인구가 3.2백만으로 인구의 10% 내외만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은 2004년 도입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용인원이 24.6만 명에 그친 상황이다. 아직까지 사용횟수 면에서 인터넷뱅킹은 가입자당 8.8회, 모바일뱅킹은 연간 3.4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필리핀

필리핀 중앙은행은 2002년 12월 RTGS 시스템으로 PhilPaSS를 개통하였다. PhilPaSS는 은행간 거액결제와 정부증권거래에 따른 금융기

관결제, 외환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소액결제시스템의 최종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PDDTS (Philippines Domestic Dollar Transfer System)은 필리핀내에서 미 달러화로 표시된 각종 수표와 은행간 거래를 담당하는 어음교환소이다. 이는 필리핀 은행연합회(The Ban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the BAP), Philippine Central Depository (PCD), Philippine Clearing House Corporation (PCHC), Citibank Manila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PDDTS는 은행간 거액 결제를 RTGS 기준으로 수행하고, 소액 미 달러화의 은행간 거래와 수표거래를 담당하는 PCHC의 차액정산 후 최종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마닐라 지역어음교환소는 대체로 수표 교환에 3일이 소요되고, 지방어음교환소에서는 7일이 소요되며, 이 두 곳의 어음교환소가 담당하지 않는 지역은 30-45일 까지 소요된다.

EPCS(Electronic Peso Clearing System)는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으로 BAP 및 PCHP가 운영하고 있다. 즉 고객이 은행에 지급을 의뢰하면, 은행은 이를 PCHC로 전송하고, PCHC는 당일 차액을 중앙은행에 송부하여 최종적으로 PhilPaSS를 통하여 은행간 결제가 종결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EPCS는 고객계좌로 부터의 자동인출 업무를 계좌이체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 이들 소액결제는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소액전자결제수단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ATM망은 과거 개별은행이 상호 협력하는 Expressnet, MegaLink, Nationlink, Bancnet 등 4개의 망이 있고, 최근에는 이들 네트워크간 협력이 증진되어 호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필리핀의 현금카드 수는 1000만 명을 넘었고, ATM기는 전국적으로 2007년 6월말 현재 6967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6247개의 ATM 기기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 제공하고, 지방은행은 73개에 불과한 ATM기기를 보유하며 나머지 647개는 소규모 저축은행이 보

유하고 있다. ATM망의 호환성이 높아지면서 ATM은 현금인출 뿐만 아니라, 은행간 결제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TM을 통한 은행간 결제는 ATM기를 통한 타은행 지급명령이 각 망의 주관은행(Treasury)에 전달되고, 이것이 PCHC를 통하여 은행간 차액계산이 이루어진 후, 마지막으로 PhilPaSS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진다.

신용카드 시장은 대형은행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용 잔액이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신용카드 시장에서 대형 상업은행이 전체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 시장을 주도하여 2006년 기준 전체 사용 잔액의 95%를 대형 은행이 차지하고, 저축은행은 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등 최신 전자금융수단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2007년 6월말 현재 87개 은행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33개의 은행이 중심이 되어 있다.

필리핀의 모바일 뱅킹은 매우 편리하게 자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수단으로 발달되었다. 이동통신사 Globe 및 SMAET가 2004년부터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보관, 이체, 송금, 현금인출이 가능한 G-cash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즉 무선전화번호만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금할 수 있고, 고객은 자신의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G-cash를 은행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2008. 6. 23 투고; 2008. 12. 8 심사; 2009. 1. 8 게재확정)

Abstract

## The Export Direction and Strategies of Electronic Banking and Finance Market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Choong Lyol Lee (Professor, Korea University)

Sun Ho Lee (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

We examine the current stage of electronic banking and finance of 7 countri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And we analyze the possibility of exporting Korean electronic banking service to them. First, after careful examination of the statistical data of these countries, we find that their systems are underdeveloped and that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ir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program. Second, to make it succeed,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ir development stages are so different that we should use different strategies for each different country. Third, we find that Korean IT firm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ones, must cooperate wi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and Korean government to succeed in these project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some laws and regulations on Korean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 changed to promote the export of electronic finance service.

Key Words: Electronic Banking and Finance, RTGS, Payment Service,  
Export